

## ■ 노조 파업 금호타이어 회생 찬물

## 원자재 살 돈마저…공장 올스톱 우려

1천억 긴급자금도 허공에…협력업체엔 직격탄

파업 돌입땐 채권단 법정관리 등 극단 조치 고려

금호타이어 노조가 행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사협상 재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등 아직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회생의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

조기 임단협을 통해 자구안을 만들겠다던 노사는 오히려 갈등만 쌓았다. 파업하겠다는 곳에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할리 만무다. 이로 인해 자금 사정은 더욱 경색되고, '워크 아웃 중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게 뻔하다. 이같은 악순환은 워크아웃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난 악화…공장 올스톱 우려 = 금호그룹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와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신규 운영자금 2천800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금호타이어에는 노조가 구조조정 등의 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1천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을 결정하고도, 집행을 미루고 있다.

정부도 당초 이달 초까지 금호타이

어 협력업체의 만기도래 정책자금 상

환을 유예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

이었지만,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원을 전면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 9일부터 지원할 것으로 알

려진 협력업체 정책자금도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째 임금과 상

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체불된 임금은 664억원에 달한다.

자금난에 시달려온 광주·전남지역 280여개 협력업체들도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금호타이어 공장의 원자재 수급에

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측은 원자재

수급 부족으로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을 24시간 가동에서 16시간 체제로

바꿨다가 최근 다시 24시간 체제로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렸다. 파업

에 대비해 제품 생산을 늘린 것이다.

문제는 파업을 하면 하지 않던 20

일개 원재료가 고갈돼 공장 전면 가

동중단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사측 관계자는 "공장의 원자재 수

급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협상 재개와 노

조의 입장 수정 밖에 없지만, 노조가

워낙 강경해 쉽지 않다"면서 "파업을

대비해 공장 가동률을 올렸지만 원재

료 수급 문제로 100% 공장가동도 언

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

황"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 차질= 지난 1월6일 개시한 워크아웃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실사를 끝내고 계수조정에 들어간 채권단은 최종보고서 작성 만 남겨 놓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임단협을 통해 노사가 구조조정안 등을 내면 이를 바탕으로 사측의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노조의 파업 가결로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되면서 채권단의 의견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채권단은 노사 갈등을 이유로 법정관리 등 최후의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 회사는 그야말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이다.

당초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최종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워크아웃 계획을 3월 중에 완성하면 4월 초 양측간 협의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 지노위 조정 시도

지난 2일 협상 결렬 선언 이후 처음으로 금호타이어 노사가 한 자리에서 만났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지방노동청사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노동쟁의 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노사가 서로 기준 입장을 고수해 오는 15일 2차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차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 美 고객만족도, 현대차 야브랜드 중 1위

## 기아차도 13위로 꺾총

현대차는 미국의 마케팅 조사업체 제이디파워사(社)가 최근 발표한 2010년 '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아시아 브랜드 중 1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기아차는 756점으로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한 1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8점이 상승한 771점을 얻어, 일반

브랜드 23개사 중 9위, 아시아 브랜드로는 1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구입 후 3년 이내 딜러의 정비서비스를 받았던 소유주를 대상으로 ▲차량수리 ▲수리 후 차량 인도 ▲고객 응대 ▲차량 입고 ▲딜러 시설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나타낸다.

현대차가 기록한 771점은 혼다(760점), 도요타(741점), 뉴산(731점)

점) 등 아시아권 일반 브랜드를 모두 제친 것이다. 독일 폴크스바겐(764점)보다도 높은 수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서비스 만족도는 현지에 기반을 둔 미국 메이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며 "외국업체가 고전하는 상황에서 일본 브랜드를 압도하는 현대·기아차의 상승세는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고객 서비스 만족도는 제품 품질 만족도와 함께 고객의 보유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유 고객의 신차 구매와 구체적인 취득금액, 취득방법 등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아시아나 지분 원위치”

## 금호산업 공시

금호산업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금호석유화학에 매각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2천226만 9천600주를 되사들인 2개월 이상 끌어오던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들과 채권단 간 협상이 모두 마무리됐다.

사업은행은 9일 18개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이 채권단이 제시한 대우건설 팽목읍신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보유중인 39%의 대우건설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산업은행의 사모주식펀드(PEF)에 참여하는 방안과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 8천원에 산업은행에 넘기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채권단은 이달 내에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

## 대인동삼일부동산

(FAX) 02-1772 1011-602-2522  
(광주광역시 산본동, 대인동 소방서 2층)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

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

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 383-5221 1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감자정 1층)

##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업무 800만원

동신동 (22,000평) 전업 10만원

나주신교 (15,300평) 조경 35만원

동원동 4,469㎡ (1,352) 준주거 350만원

## 사원 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매 개발 전문회사로서 사세학장에 따라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지원자격 비고

경리 여 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월급

개발 남·여 0명 \* 관련전공과 이수자 \* 유 경험자 기본급+수당

아파트 여 00명 \* 유 경험자 여 실장

토지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상가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분양 및 중개

빌딩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및 회사관련업무 경험자 우대

첨단지구 37억원 3,300만원 85억원

동립지구 7억원 1,700만원 32억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만원 200억원

상무지구 26억 6,500만원 100억원

첨단지구 4억 1,700만원 28억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으실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 (유)코리아렌드

대표전화 959-1033, 010-7723-10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483번지

## 금호산업 채권단-개인투자자 워크아웃 협상 '2라운드' 돌입

## 원리금 일시 상환 요구…정상화 차질 우려

개인투자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2개월 이상 끌어온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협상이 사설상 마무리되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아음(CP)과 회사채 등의 비협약 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과 2라운드 협상에 돌입했다.

CP와 회사채 규모는 4천500억원 안팎으로 금호산업 전체 채무의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금호산업의 개인투자자들은 원리금 일시 상환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여 테세에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호산업의 개인투자자 30여명은 8일 사업은행과 회사 측에 연체이자와 원금을 4월까지 일시금으로 상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리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호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기로 했다.

반면 채권단은 일단 개인투자자